

길을 묻는 이에게



대행스님

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
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
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
 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
 십시오. 조계종 한양대불교학부의 대
 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
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
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

●보낼곳: 우 110-170
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-33
 현대불교신문사
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
 ●FAX: (02)737-0697/8
 ●PC통신: 인터넷부디피아
 http://www.buddhopia.com/mem/ha
 nmaum

법공양 페이지

과거 집착하면 '業', 뛰어넘으면 '道'

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마음법의
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말하고 싶습니
 다. 정경(藏經)이 수없이 많이 나왔어도
 그 정경이 여러분을 깨우쳐주는 건 아닙
 니다. 그 정경은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밖
 에는 안되죠. 이미 잘 아시겠지만 누가
 대신 살아줄 사람도 없거나 대신 죽어
 주고 대신 아파주고, 대신 먹여주고 똥
 주고 잠자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
 다. 그리고 깨우쳐 줄 사람도 없습니
 다. 단 하나 있다면 자신의 주인공뿐이
 죠. 그걸 불성이라고도 합니다. 이 세상의 모든
 일체 만물만생에는 다 불성이 있습니다.
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. 영원한 생명! 그
 생명이 있음으로써 육체를 움직여갈 수
 있고, 웅다 그러다 하는 판단을 하고 싶

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면 컴퓨터
 에서 지워지면서 그 마음이 바로 새롭게
 입력이 돼요. 그러니 걱정없이 살 수 있
 다고 하는 게 바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
 있는 고등동물이기 때문이죠. 내일 죽는
 다 하더라도 걱정을 하지 마세요. 왜냐
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
 지 심부름꾼이 될 그렇게 생각할 게 있
 습니까? 한 발짝 떼어놓고 없애지고 한
 발짝 떼어놓고 없애진다는 것만 잘 아
 션다면 나쁜 것도 법이고 좋은 것도 법이
 고, 잘못하는 것도 법이고 잘하는 것도
 법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
 그 양면을 다 놓을 수 있다면 바로 도에
 이르게 되는 것이죠. 양면을 다 놓으려면
 과거에 잘못된 것도 자기가 놔버려



그림 · 최주현

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 어떤 것에도
 겁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한테
 물으시고 거거다가 놓으세요. 그리고 그
 냥 해나가는 것이 정법이예요.

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
 모두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. 그런데 왜
 붙잡으십니까. 흔히 말하기를 '태어나면
 고(苦)다'라고 하는데 태어나도 태어난
 사이가 없으면 고가 아니죠. 내 주인공은
 정신계의 주인공으로서 심부를 하게끔
 자기 몸을 자기가 형성시켜 놓은 것이기
 때문에 공체(空體)란 말입니다. 공체! 내
 몸속에도 많은 생명들이 들어있는 것은
 과거로부터 인연을 이어서 현재로 이어
 진 거예요.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
 현재로 이어진 거구요. 또 현재에도 모두
 가 공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.
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'이것도
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알
 아서 해라'하고 '죽이든지 살리든지 너
 알아서 해라'하고 거거다 놓고 부지런히
 심부름만 하면 돼요. 한계가 있는 몸중이
 는 언제든지 한번 죽습니다. 그러나 실질
 적인 자기의 자신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.
 그러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끌어 줄 수 있
 는 보배죠. 본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
 크고 작고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한 발짝
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듯 나쁜 것도
 좋은 것도 바람처럼 지나가버리니까요.
 나쁜 것, 좋은 것, 그냥 싹쓸이 버려야
 죠. 본래 진리라는 게 싹쓸이 버려야
 거예요. 거거다 놓으니까, 마음은 체가
 없어서 한 자체가 없는 걸요.

한 발자국 떼면 뒷 발자국 없어지듯 일체만법이 공해서 돌아갑니다 잘못도 붙들지 마시고 놓으세요

서를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
 까 정신계의 나와 물질계의 내가 항상
 동등하게 나간다면 이런 말입니다.
 '법(法)도 없고 공(空)도 없고 다 없
 다' 하는 뜻은 뭐겠습니까? 여러분이 과
 거를 생각하고선 여지없이 그 과거에 집
 착하고 걱정하고 또 아직 오지도 않은
 미래 일을 걱정합니다. 그런데 보세요.
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
 또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
 는데 집착할 게 어디 있습니까. 일체만법
 이다 그러합니다. 과거를 생각하여 집착
 하면 업(業)이 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
 고 뛰어넘으면 도(道)가 됩니다. 과거에
 살던 집착, 관습, 욕심 등 모든 걸 놓으
 세요. 과거를 묻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
 떼어놓으면 뒷 발자국이 자꾸 없어진다는
 것만 경심하세요. 보는 것, 듣는 것, 말하
 는 것, 만나는 것, 가고 오는 것, 모두가
 힘이 없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집착을
 두지 말고 고난을 고(苦)라고 생각하
 마세요. 지나간 거니까요. 모두가 공해서
 돌아가는데 과거의 일을 두고 '어저께는
 참 많이 잘못했는데...' 이렇게 붙들지
 마시려고요. 잘못한 것도 그 자리에서 한
 것이고 잘한 것도 그 자리에서 한 거
 니까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.

고 있으면 안되죠. 본래 진리라는 것은
 놓고 가게 돼 있습니다. 놓고 가는 걸 붙
 들고 괜히 애를 써요.
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바로 나로
 인해서, 각자 나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
 다. 그러니까 잘되는 것은 하고 못되는
 거는 하지 말라 이런다면 그건 그냥 법
 (法)이지마는 공법(空法)에서는 잘한다
 못한다는 양면을 다 떠나야 됩니다. 그래
 서 항상 말하기를 일체 만물만생은 모두
 가 공성이고 또 공성이며 공체며 공용이
 며 공식이라고 합니다. 모습은 다르지만
 생명이 사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.
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해드려야
 그걸 뛰어넘을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
 발자국으로 비유를 했는데, 그것처럼 보
 는 것도, 듣는 것도, 말하는 것도, 그리고
 냄새 맡는 것 등 모두가 참나에 말을 하
 게 되고 참나에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
 는 거란 말입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
 각할 때 고정된 게 하나 있습니까? 고
 정된 게 없으니까 힘이 없이 한 거란 말
 입니다.
 산중으로 다닐 때 한번은 목에서 울적
 피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'이
 제 죽는 게 보다'고 생각했죠. 사실이지
 그때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몸을 움직

"空法에서는 '잘한다' '못한다' 양면 다 떠나야" "진실하면 미생물까지도 한마음 됩니다"

일 힘조차 없었거든요. 그래서 꼼짝없고
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
 죽어지지만 기다렸어요. 그런데 바로
 그때, 뱀 한 마리가 풀밭에서 기어나오
 니만 내가 앉아있는 바위로 올라왔어요.
 그리고 놀랐게도 무슨 풀잎을 물고 있는
 것이었어요. 그걸 바위에다 갖다 놓으면
 서 그 뱀이 전하는 뜻인즉 '당신이 나를
 구해준 일이 하도 고마워서 이것을 드
 리니 잊이겨서 먹고 나오라'는 것이었어요.
 생각해보니 언젠가 뱀이 두동강 나서
 찢겨가는 걸 보고서 너무나 불쌍해서 땅
 에다 묻어준 일이 있었어요. 뱀의 그 마
 음을 알고서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.
 나를 살리려는 뱀의 뜻이 고마워서라기
 보다 살아있다는 것, 생명을 가진 것들이
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하다 진한 사

랑과 자비, 서로를 살리고 위로하려는 그
 지극한 마음, 처절한 마음이 나의 온 몸,
 온 마음을 너무나 강력하게 사로 잡았기
 에 그만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. 그
 풀잎을 바위에 짓이겨서 먹고는 각혈이
 났고 다 나았는데 나중에 그 풀을 찾아
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. 그때 나는
 나의 마음과 뱀의 마음이 진정 하나인
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답니다. 그토
 록 진한 감동은 그때가 처음이었죠.
 그러니까 마음의 인연이라는 것은요,
 말로 인연을 짓는 것과 모습으로 인연을
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. 진정한 마음으로
 내 아픔같이 생각한 그 도리가 거기에까
 지 미친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생명이라도
 내 생명과 풀이 아니라 말입니다. 살생을
 하지 말라고 하는 뜻도 이런 데 있습니

다.
 그리고 '잘되고 못하고, 잘하고 잘못하
 는 것도 풀이 아니다' 하는 뜻도 살아가
 는 게 고정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. 그
 서 양면을 다 놓고 물러서지 않고 밀고
 나가는 믿음이 그대로 도의 공성입니다.
 나쁜 것, 좋은 것이 다 한군데서 나오거
 든요. 그러니까 한군데다가 양면을 다 놓
 고 가세요. 본래 자기 자신이 바로 자
 불인데, 자불이 자기를 형성시켜서 이렇게
 고등동물로서의 쓰고 단 것을 알게끔 꺾
 게 만든단 말입니다. 지금 진리는 나쁜
 것 좋은 것이 반반 섞여서 돌아가고 있
 습니다. 해와 달이 뜨듯이, 저녁이 되고
 또 아침이 되듯,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
 고, 잘 되고 잘못 되고, 길고 짧고, 넓고
 좁고, 이런 게 모두가 그냥 그렇게 진행

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·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
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

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.
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

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
 의뢰할 수 있습니다.

☞ 18면으로 계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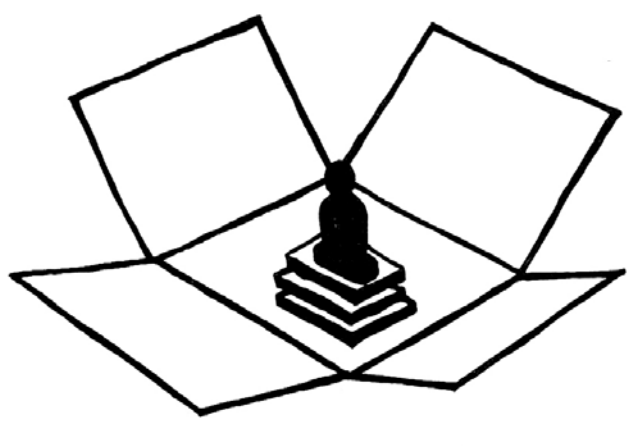
생활속의 불교 162

흰히 뚫린 제 앞 길을 스스로 가로막으면서

"세상에 그 어떤 감옥보다도 더 무서운
 감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의 감
 옥이다.
 세상에서 가장 넓기 어려운 벽이 있다
 면 그것은 곧 사념의 벽이다.
 수행이란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
 그러한 생각의 벽, 사념의 감옥에서 벗어
 나는 일이다.
 본래 벽은 없다. 사방이 탁 터져 있어
 서 들어야 할 벽도, 넘어야 할 벽도 없
 다. 그럼에도 사람들은 제 앞 길을 가로
 막는 벽이 있다고 믿는다.
 스스로 쌓아 올린 벽인줄 모르고 벽이
 있다고 안타까워 한다."

사념(邪念)이 된다. 이른바 '아는 게 병'
 인 것이다.
 바깥 경계와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민
 가를 자꾸 주위 담는다. 웅다 그러다, 좋
 다 싫다로 관별해서 주위담고 멀다 가깝
 다 크다 작다로 분석해서 주위담는다. 그
 래서 우리들의 머리 속은 언제나 그런
 본별로 가득 차 있다. 시냇물로 머리가
 좋다는 사람일수록 본별은 흘러 넘친다.
 그것도 모자라서 평생을 기울여 지식을
 쌓기도 한다. 수레가 넘치도록, 혹은 쌓아
 놓은 책이 보폭에 닿을 만큼 읽고 또 읽
 이 지식을 쌓어 놓는다.
 그리고는 그걸 잣대로 삼아 내 일, 내
 일 마다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려 한다.
 이건 옳다, 저건 그르다 하면서 세월을
 보내고 이긴 바랄적하다. 저건 좋지 않다
 하면서 살아간다.

생각의 잣대는 족쇄다. 감옥이다. 장벽
 이다. 그 생각의 잣대가 나의 언행을 지
 배한다. 따라서 그것은 나를 묶는 족쇄이
 다.
 그 생각의 잣대를 무기삼아 사물을 상
 대한다. 따라서 그것은 나의 감옥인 셈이
 다. 그 생각의 잣대가 나를 가둬 놓는다.



따라서 그것은 나의 성곽이 된다. 누구라
 도 그것을 애지중지하지만 실은 그것이
 아말로 내 앞 길을 가로막는 만리장성이
 요 은산철벽이다.
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목줄이요 내 삶
 의 유연성을 앗아가는 번뇌의 씨앗인 것
 이다.
 생각의 잣대는 내 눈을 멀게 한다.
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방해
 한다. 짙은 안개와 같다. 먹물과 같다.
 스스로 만들어서 간직해 온 것이지만
 나의 시계(觀察)를 가로 막아 앞을 보지
 못하게 한다. 순탄하게, 원히 열리기를 바
 라는 자신의 인생행로에 안개를 피우고
 장막을 치는 것이다. 탐욕, 분노, 편견, 원
 한, 질투, 자만, 애착 따위의 걸림돌을 놓
 는 것이다.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.
 스스로 벽을 쌓고 스스로 시계를 흐리게
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장벽을
 보수하고 더욱 더 짙은 안개를 피워대니
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인가.

본래 벽은 없다. 족쇄도 없고 잣대도
 없다. 인간의 근본 성품은 어디에도 걸리
 지 않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대자유의
 생명에너지이다. 그런데도 그 자유로운

성품은 벽에 갇혀 산다. 바로 자기방어라
 는 그릇된 편견 때문이다.
 그 편견은 무지요 무명이다. 그것은 번
 민을 만들어내고 갈등과 투쟁을 불러온
 다. 자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
 를 고통에 빠뜨린다. 온갖 알음알이와 생
 각이라는 무기까지 동원해서 해친다.
 자유롭고자 하면서 자유 그것인 본성을
 자기 방어라는 편견으로 묶어두려고 하
 니가 번뇌와 갈등이 따르고 삶의 과정은
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지게 되는 것이다.
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죽이고 있
 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.

벽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. 온갖 지식
 과 사념은 벽지를 볼 줄 알때에 비로소
 올바르게 쓰이게 된다. 지혜로운 방편이 된
 다. 그러나 벽지를 볼 줄 모르면 생각이
 많으면 많을수록 번민과 고통도 늘어나
 게 된다.
 벽지를 보려거든 자기방어의 논리부터
 버려야 한다.
 버리면 얻는다. 크게 버리면 더 크게 얻
 는다.

협 찬 : 한 순 례